

나주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센터 직원·학부모·교직원 등 20여명 참여 학교폭력 예방·교통·물놀이 안전 위한 캠페인

나주교육지원청은 20일 나주중앙초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추어 김영길 교육장을 비롯해 학교지원센터 직원, 나주중앙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안전(학교폭력 예방과 교통 및 물놀이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방학을 앞두고 방학 기간 동안 교외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과 교통 및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통 및 물놀이 안전을 주제로 한 어깨띠,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해 캠페인 활동을 펼쳤으며, '상처받은 친구마음 감싸주는 우리 우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캠페인 홍보 물품을 전달하면서 학

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등굣길 학생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최근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날 함께한 나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앞두고 평소 알고 있는 안전 지식을 한 번 더 되새기고,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캠페인에 참석한 김영길 교육장은 "오늘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교통 및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우리 교육청도 학생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 안전 관련 공동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나주경찰서, 학부모회 등 유관단체(기관)와 협력하여 예방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화정중, 기후변화 교육 실천 캠페인 개최 평소 잔반 30% 감소

광주화정중이 최근 4주 동안 교내 전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실천을 유도하는 '아무지개 먹어아침' 캠페인을 실시했다.

19일 광주화정중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매달 열리는 학생자치회 중심의 학생 회의에서 나온 안전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학생 중심의 기획 및 홍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무지개 먹어아침' 캠페인은 학급급식의 잔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시작됐다.

잔반을 다 먹은 학생에게는 학교 로고 모양의 스티커를 나눠줬고, 가장 많이 모은 학급에 상장과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경쟁의식 NO, 반칙행동 NO, 환경사랑 YES'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고,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4주 동안 진행된 캠페인은 학생자치회와 교직원들이 서로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됐다.

캠페인 진행되는 동안 평소 잔반의 30%가 감소했다.

절감한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특별간식을 제공하는 등 학생·교사·교직원들의 단합된 학교자치 문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광주화정중 3학년 이유미 학생회장은 "이번 '아무지개 먹어아침'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학생자치의 참된 가치와 교육활동 참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면등교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광주화정중 박정현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의 주체가 되고,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화정중은 앞으로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교육청-완도문화원, 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 문턱 낮게·프로그램 품격 높게·국민 행복 크게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완도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역사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미래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완도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장필 교육장, 추강래 완도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 및 인적·물적 자원 연계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완도교육지원청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완도문화원이 추진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에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완도문화원은 장보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 문화재 체험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추강래 완도문화원장은 "완도의 미래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있다. 학생들을 위해 우리 문화원에서 차별화된 활동을 지원하겠다.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완도문화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고흥지역사회연합학생생활지원단 '여름방학 학생지킴이' 협력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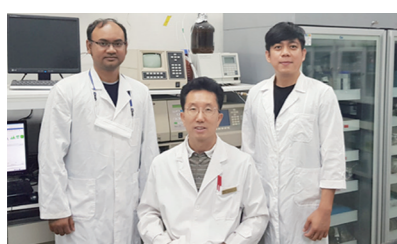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9일 고흥 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과 여름방학 중 코로나19 방역, 학생생활지도 및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은 고흥군청, 고흥경찰서, 고흥군 방범연합회,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고흥관내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들로 구성되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관련 활동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안전한 마을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캠페인 활동 등의 일정 등 대해 협의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순천대 동물자원과학과, 16회 퓨리나 영양사료 대상 수상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이상석 교수가 최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21년 한국 축산학회 종합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제16회 퓨리나 영양사료 대상'을

한국 축산학회 종합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수상했다.

동물영양 전문가인 카길에그리퓨리나에서 후원하는 '퓨리나 영양사료 대상'은 축산분야 영양 및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연구자에게 2년간의 연구결과를 통해 선정하여 한국축산학회에서 시상한다.

순천대 이상석 교수는 한국 축산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SCI급 저널

인 「Journal of Animal Science & Technology」에 2020년과 2021년 게재된 논문의 높은 인용 횟수와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이상석 교수는 "가축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중인데, "연구실의 연구원들과 좀 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함평교육청, 폭염 속 배움의 열기 가득

마을학교 활동가 20여명 대상, 역량강화 연수

함평교육지원청은 19일 함평영재교육원 컴퓨터실에서 마을학교 활동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마을활동가들은 도지정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평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마을이 함께 꿈꾸고 나아가고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코

로나19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기위해 ZOOM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수 강사인 함평창의융합센터 전담교사 유용준 선생님은 회원가입부터 기본 설정 및 기능, 알면 유용한 TIP까지 ZOOM 활용 방법에 대해 마을활동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함평=김광춘기자

